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글 / 전 흥 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지 난 6월 30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희망2004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이 열렸다.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을 우리 사회의 지표로 삼기 위해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하는 소중한 귀한 자리다.

올해 영예의 수상자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등 총 86명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 아름다운 얼굴들이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보통사람들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훈장 모란상은 삼성생명의 배정충 대표가 수상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년간 6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저시력인연대 미영순 회장은 바로 앞에서 인사를 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 2급의 저시력장애인으로 역경을 딛고 41세의 나이로 정치학 박사가 된 입지적인 인물이다.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1991년 전국저시력인연합회를 결성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함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또한 무임승차 교통비를 모아 매년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의 삶을 살고 있다.

또다른 수상자 안명화씨는 농촌가정의 '보통이쭈마'로 불우이웃과 복지시설을 돌보고 지역 공동모금회와 함께 경로당 유류지원, 무료급식 사업에도 발벗고 나서며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수상자 소개를 위해 사진을 달라고 하자 "자원봉사활동 때 찍은 사진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 검소하고 남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외에도 수상 기록을 보면 얼핏 보통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직접 만나 본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수줍어하고, 그저 늘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었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나눔의 실천

"왜 나누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은 참으로 답하기 쉽지 않은 물음이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누기 위해 우선은 더 가지고, 더 누려야 하는 아쉬움을 참아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배워가는 것이다.

3년 전 '한사랑벤처릴레이'를 시작할 때 100번째 기부자로 선정된 한 벤처인은 한사랑벤처릴레이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차 한 잔, 밥 한 끼 친구들한테 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밝게 웃었는데 그 후 매달 1만원의 소중한 나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나눔은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없이 쏟아져 오려려 농작물을 망치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 소나기가 아니라 소리없이 내려서 축축하게 대지를 적시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가랑비와 같다.

그래서 '희망2004이웃돕기유공자 포상식'은 '행복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행복해진다'는 평범하지만 깨닫기 쉽지 않은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오늘도 소리 없이 대지를 적시는 가랑비처럼,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